울리고 웃기는 詩

김형태 박사(한남대학교 14-15대 총장)

① 아파트 단지 내 한의원을 방문했다가 외벽에 붙어있는 액자 속 시를 읽었다. 편안하고 정감이 넘쳐서 몇 번이나 읽어 보았다. “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/ 어머니께서 / 한 소식을 던지신다 // 허리가 아프니까 /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/ 꽃도 열매도, 그게 다 /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// 주말엔 /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/ 그래도 큰 애 네가 /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녔냐? //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/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/ 호박에 똬리도 받쳐야겠다 /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// 싸우지 말고 살아라 /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게 별거냐 /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/ 의자 몇 개 내놓은 거여”(이정록/의자). 옛날 유행가 가사에 임자가 따로 있냐? 앉는게 임자인데. 돌고 도는 회전의자 얘기만 생각하다가 이런 ‘의자’ 철학을 읽으니까 마음속 묵은 때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. 그러다가 외설스럽지만 예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를 읽었다. ② “참 빨랐지 / 그 양반 // 신랑이라고 거드는게 아녀 // 그 양반 빠른거야 / 근동 사람들이 다 알았지 // 면 내에서 오토바이도 그중 먼저 샀고 / 달리기를 잘해서 / 군수한테 송아지도 탔으니까 // 죽는거까지 / 남보다 앞선 게 섭섭하지만 / 어쩔거여 / 박복한 팔자 탓이지 // 읍내 양지 다방에서 / 맛선 보던 날 / 나는 사카린도 안 넣었는데 / 그 뜨건 커피를 / 단숨에 털어 넣더라니까 // 그러더니 오토바이에 / 시동부터 걸더라고 / 번갯불에 / 도롱이 말릴 양반이었지 / 겨우 이름 석자 / 들어본게 단디 말이여 // 그래서 저 남자가 날 퇴자 놓는구나 / 생각하고 있는데 / 어서 타라는 거여 / 망설이고 있으니까 / 번쩍 안아서 태우더라고 / 뱃살이며 가슴이 / 출렁출렁하데 / 처녀적에도 / 내가 좀 푸짐했거든 // 월산 뒷덜미로 몰고 가더니 / 밀밭에다 오토바이를 / 팽개치더라고 / 자갈길에 젖가슴이 / 치근대니까 / 피가 쏠렸던가 봐 / 치마가 훌러덩 뒤집혀 / 얼굴을 덮더라고 / 그 순간 이게 이년의 / 운명이구나 싶었지 // 부끄러워서 /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/ 정말 빠르더라고 / 외마디 비명 한번에 / 끝장이 났다니까 // 꽃무늬 치마를 입은게 다행이었지 / 풀물, 핏물 찍어내며 /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/ 먼 산에 대고 그러는거여 / 시집가려고 나온 거 아녔냐고 // 눈물 닦고 훔쳐보니까 / 불한당 같은 불곰 한 마리가 밀이삭만 씹고 있더라니까 // 내 인생을 통째로 넘어뜨린 /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/ 한순간에 끝장나다니 // 하늘이 밀밭처럼 노랗더라니까 / 내 매무새가 / 꼭 누룩에 빠진 흰 쌀밥 같았지 // 얼마나 빨랐던지 / 그때까지도 / 오토바이 뒷바퀴가 / 하늘을 향해 따그르르 / 돌아가고 있더라니까 // 죽을 때까지 / 그 버릇 못 고치고 갔어 / 덕분에 / 그 양반 바람 한번 안 피웠어 / 가정용도 안되는걸 / 어디 가서 / 상업적으로 써먹겠어 // 정말 날랜 양반이었지”(이정록/정말). 슬픔을 웃음으로 순화시키는 시다. 내공으로 가득 찬 시인의 넉살 때문에 많이 웃었다. 외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. ③ “암만 가려워도 /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// 첫 애 업었을 때 / 아기 입술이 닿았던 곳이다 / 새근새근 새털 같은 콧김으로 / 내 젖은 흙을 말리던 곳이다 // 아기가 자라 / 어딘가에서 홧김을 내뿜을 때마다 / 등짝은 오그라드는 것이다 // 까치발을 딛고 / 가슴을 쓸어내린다 / 손차양하고 멀리 내다본다 // 오래도록 햇살을 업어 보지만 / 얼음이 잡히는 북쪽 언덕이 있다 / 언 입술 오물거리는 / 약 숟가락만한 응달이 있다”(이정록/그럴때가 있다). 우리 등에는 자신의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. 그 부분이 바로 아이를 업었을 때 아이의 입술이 닿았던 곳이다. 우리 등에서 새털 같은 콧김을 내뿜어 내 젖은 흙(우리 몸은 ‘地’, ‘水’, ‘火’, ‘風’으로 이루어졌다고)을 말리던 곳. 그곳은 일종의 사각지대다. 부모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자식들은 사각지대다. 그래서 자식은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불효다. 부모의 등을 오그라들게 하고, 얼음이 어는 북극 언덕으로 만드니까.